추모를 위한 데이터시각화 방안 고찰

A Study on Ways to Visualize Data for Memorial

주 저 자 : 김민정(Kim, Min Jung) 한양사이버대학교 뉴미디어디자인학과 교수

https://doi.org/10.46248/kidrs.2022.4.400

접수일자 2022. 11. 28. / 심사완료일자 2022. 12. 9. / 게재확정일자 2022. 12. 26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분야 신진연구자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2S1A5A8052686)."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visual language of memorial activities for COVID-19 victims and seeks to visualize data of death.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culture and behavior of East and West memorial services, but the condolences can be said to be ‘a medium of memory.’ Cherish memory in the past was built as a monument or memorial hall, but recently, memorial activities have also appeared in public parks and squares, and online memorial services have also been held in digital spaces. Most of the visualizations of the memorial focused on ‘individuality.’ The text that explains the name, age, and what kind of person he was as a personal subject is a visual language that must be revealed for memorial purposes. In addition, The 'relationship' should also be considered. As the number of deaths increases, the victim's name is not arbitrarily listed, such as alphabetical or chronological order, and if the text is arranged as a meaningful approach, it can have deeper empathy and meaning. By grieving together through acts of cooperative mourning, the bond becomes stronger, and thus society can become healthier. It is hoped that this study will be used as a basic study on the visual elements of memorial that can arouse empathy based on humanism.

Keyword

COVID-19 Victim(코로나19 희생자), Memorial(추모, 기념비), Visual Language(시각 언어), Data Visualization(데이터시각화)

요약

본 연구는 COVID-19 희생자를 위한 추모 활동의 시각적 언어를 살펴보고, 추모를 위한 죽음의 데이터를 표현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동서양 추모의 문화 및 행태에는 차이가 있지만, 추모는 ‘기억의 매개’라 할 수 있다. 과거의 추모는 기념비나 기념관 등으로 건립되었으나, 최근에는 공공의 공원이나 광장에서도 추모 행위가 나타나며, 나아가 디지털 공간에서도 온라인 추모가 이루어지고 있다. 추모의 시각화는 대부분 ‘개별성’에 초점이 맞춰졌다. 한 명의 인격적 주체로써 이름과 나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설명하는 텍스트와 대상을 상징하는 사진 등의 이미지는 추모를 위해 반드시 드러나는 시각적 언어이다. 또한 '관계성'을 고려해야 한다. 사망자의 숫자가 많아질수록 희생자의 이름을 알파벳 또는 시간순과 같은 임의로 나열하지 않고, 사회적 관계를 암시할 수 있는 방향으로 데이터가 조직될 경우, 추모 대상에 대한 더욱 깊은 공감을 이끌 수 있다. 협력적 애도와 추모의 행위를 통해 서로 함께 슬퍼함으로써 유대관계는 더 강건해지고, 그리하여 사회는 더 건강해질 수 있다. 본 연구가 휴머니즘 바탕의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데이터시각화에 대한 기초 연구로써 활용되길 기대한다.

목차

1. 서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1-2. 연구 방법 및 범위

2. COVID-19 희생자를 위한 추모 사례

2-1. 추모

2-2. 사례 분석

3. 추모를 위한 시각적 요소

3-1. 개별성

3-2. 관계성

4. 결론

참고문헌

1. 서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2018년에 개봉한 영화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에는 '악'의 축을 담당한 캐릭터 '타노스'가 손가락을 튕겨, 지구인의 절반을 사라지게 하는 장면이 있다. 현실에서도 팬데믹으로 인해 미처 준비하지 못한 수많은 죽음을 맞이했다. 함께 일하던 직장 동료를 잃기도 하고, 사랑하는 가족의 장례식에서조차 제대로 참석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세계 곳곳에서 벌어졌다. 그러는 동안 대중매체에서는 연일 사망자의 수를 언급했다. 많은 언론인과 대중이 죽음의 숫자에 무감각해질 즈음, 공식적으로 팬데믹 종료가 선언되지 않았음에도 세계 곳곳에서는 유행병의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됐다(2022년 기준). 사랑하는 지인과 가족의 죽음을 기억하기 위한 추모의 활동은 한 명의 개인에서부터 지역과 사회, 그리고 국가적 차원으로까지 번져나가고 있다. 특히 일반적인 장례와 추모 절차에서 벗어나 생존자와 희생자 가족들이 함께 마음을 치유하고 공유할 수 있는 예술, 문화, 디자인 활동이 전 방위적으로 펼쳐지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추모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미학과 철학, 그리고 건축학에만 집중되어 있어, 소통을 근간으로 한 시각화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디자인 분야에서의 접근도 필요하다. 특히 데이터와 정보의 시각화 관점에서의 시각적 요인 분석은 추모의 표현에 대한 경험을 보다 가치 있게 탈바꿈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대 추모 패러다임의 변화를 살펴보고 추모를 위해 행해지는 온·오프라인 예술, 문화, 디자인 활동들의 사례를 수집하고 고찰함으로써, 죽음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시각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의 접근 가능성을 탐색한다. 특히 팬데믹 희생자의 추모를 위해 제작된 사례들의 정보와 시각화 유형의 관계를 분석하여 추모를 위한 시각적 언어 장치에 대한 실질적 요소를 도모한다.

1-2. 연구방법 및 범위

디자인 영역에서의 추모 연구는 전혀 없는 상태이며, 대부분 건축학 또는 미학 분야에서의 추모 연구가 많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간의 죽음을 대상으로 한 추모의 시각화 표현 유형과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세계 각국의 추모 행위에 관한 온라인 자료를 수집 및 분석한다. 특히 물리적 공간과 디지털 공간에서 일어난 추모 활동으로 분류하여 특징을 살펴본다. '추모'에 관한 이론적 배경은 선행연구 및 출판 문헌을 통해 탐구되었다. 추모의 활동 사례는 기념비를 제외한 시각적 언어 및 요소를 가지고 있는 신문, 공공공간 프로젝트, 그리고 디지털 웹사이트를 중심으로 제한했다.

2. COVID-19 희생자를 위한 추모

2-1. 추모

국립국어원 표준사전에 의하면 추모란, '죽은 사람을 그리며 생각함'을 뜻한다.[1] 영어 "메모리얼(Memorial)"의 사전적 의미는 명사로서 '기념비', '기념비적인 것'과 형용사적 표현으로 '죽은 자를 기념하기 위한'으로 나타난다.[2] 김혜은 외 1인은 '현상학적 지각을 통한 메모리얼 공간에 대한 연구'를 통해 메모리얼의 개념과 역할을 분석했다. [그림 1]를 통해 보이듯, 메모리얼(추모)의 역할은 '기억(記憶)의 매개'이다. 기억의 사전적 의미는 "이전의 인상이나 경험을 의식 속에 간직하거나 도로 생각해냄"[3]인데, 여기서 강조되어 살펴져야 할 의미는 '경험'과 '도로 생각해냄(회상)'이다. 우리는 흔히 '기억'이 시각적인 이미지화된 하나의 장면이라고 착각하지만, 기억은 단순한 시각적 장면이 아닌, 다감각적 경험의 집합인 것이다.[4]

[그림 1] 메모리얼(추모)의 역할 - 기억의 매개[5]

우리나라는 1990년대에 이르러 수도권 대다수 묘지화와 인구의 고령화 문제, 출산율의 저하 등의 사회적 문제에 의해, 장묘와 추모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기 시

1) https://stdict.korean.go.kr/ (2022.11.10.)

2) 「네이버 어학사전: 메모리얼(Memorial)」, https://en.dict.naver.com/ (2021.11.14), 재인용

3) 김혜은 외 1인, 현상학적 지각을 통한 메모리얼공간에 관한 연구: 메를로 퐁티의 이론을 중심으로, 조형미술논문집 14.1, 2014, pp.103-114.

4) 조영규, 일상과 추모의 복합성에 대한 건축 패러다임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1, p.11

5) 김혜은. op.cit., 2014

작했으나, 추모공간에 대한 명확한 해결방안을 찾지 못했다. 그에 반해 외국은 도심에서 멀지 않은 곳에, 또는 도심 한복판에 교회와 공원과 같은 추모공간이 존재한다. 이들은 일상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추모하는 행위를 자연스럽게 생각한다.[6]

추모의 형태는 기단 위에 세운 동상, 조각 등의 예술작품이나 오벨리스크, 개선문 등의 랜드 마크, 기념비에서부터 추모 대상과 관련된 자료나 유품 따위를 진열하는 건물의 형태를 갖춘 기념관, 야외에 있는 공원 혹은 광장, 시신을 모시는 무덤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다.[7]

2-2. COVID-19 희생자를 위한 추모 사례

4차산업혁명으로 일컬어지는 고도화된 기술과 문명이 난무한 21세기에 범세계적인 유행병이 들이닥쳐 우리의 삶이 송두리째 바뀔 것은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다. 사실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자연재해와 사건·사고, 전쟁들로 인해 수많은 죽음이 매일같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질병으로 인해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들이 부지불식간에 사라질 거라는 것도 대비하지 못했다. 예상치 못한 전염병은 우리에게 사랑하는 이와의 이별을 준비할 시간을 주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전파가 주춤해질 무렵(대략 2022년 초), 세계 곳곳에서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자발적 행동이 시작되었다. 작게는 한 명의 개인에서부터 크게는 마음을 함께 하는 단체들이 가까운 이웃의 죽음을 기억하기 위해 해변에 돌과 조개를 모아 이름을 쓰고, 사진을 이용하여 그들을 함께 기억하려 애썼다. 본 연구는 COVID-19 희생자를 위해 나타난 다양한 추모 행위를 물리적 공간과 디지털 공간으로 우선 분류하였다.

1) 물리적 공간에서의 추모

희생자들의 존엄성을 알리기 위해 대상을 객관화하여 표현한 첫 언론사 뉴스는 2020년 5월에 보도된 뉴욕타임스 기사였다. 미국 내 사망자 수가 1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을 때, 뉴욕타임스 기자들은 숫자와 그래프가 죽음을 대체하는 것에 이미 지쳐있었고, 대신할 표현방법을 고민하던 중, [그림 2]와 같이 '계산할 수 없는 손실(An Incalculable Loss)'의 전면 기사를 보도했다. 사망자 수를 선 그래프나 숫자로 표기하는 대신에, 희생자의 이름과 살던 지역, 그리고 각자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전달하는 글로 첫 장이 채워졌다. 텍스트로만 꽉 채워진 뉴욕타임스의 표지는 그 어떤 메시지보다 강력했고, 많은 이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이 지면을 보는 독자는 그 누구라도 '타인의 죽음'이 아닌 '우리의 죽음'을 생각했을 것이다.[8]

The New York Times

U.S. DEATHS NEAR 100,000, AN INCALCULABLE LOSS

[그림 2] An Incalculable Loss on Newspaper[9]

대처하지 못한 죽음의 추모는 기념관이나 기념비를 대신하여 시민들이 살아가는 공공공간에서도 일어났다. 뉴저지에 사는 Rima Samman은 2021년 6월 COVID-19에 의해 사망한 남동생의 이름을 돌 위에 적고 조개껍데기로 하트 모양을 만들어 해변에 두었다. (그림 3의 위쪽 사진)이 작은 추모관은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를 통해 알려지면서 한 달 뒤에는 3,000여 개의 돌이 모이게 된다. 이에 Rima Samman는 해변에 있는 오브제들을 조심스럽게 분해하여 임시 기념관 진열장에 재배치했다. 런던의 템스강 벽에도 희생자를 상징하는 '분홍색, 빨간색 하트'가 그려져 있다. (그림 3의 하단 사진 참고) 유족들이 그린 하트는 영국에서 14만 명이 넘는 코로나바이러스 사망자를 나타낸다. 하트로 장식된 추모의 벽을 읽으면서 걷는 데는 약 5분에서

6) 조영규, op.cit., 2021, p.1 내용 수정

7) 문은미, 현대 매모리얼의 개념 표현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기초조형학회 vol.9 no.6, 2008, p.200

8) 김민정, 엄기준, 공감을 이끌어 내는 데이터 시각화 전략 연구-인간의 죽음을 표현한 데이터시각화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27권 4호, 2021, pp.39-51

9) An Incalculable Loss. (2020.05.27.). URL: https://www.nytimes.com/interactive/2020/05/24/us/us-coronavirus-deaths-100000.html

10분이 소요된다고 한다. 실제 프로젝트에 참가하여 벽에 그림을 그린 사람들은 이 행위를 통해서 미술치료와 같은 경험을 했다고 전한다. 희생자의 가족들은 사랑하는 이의 이름을 남기고, 벽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들은 슬픔을 이해하며, 함께 마음을 통하는 자발적 추모가 일어나는 셈이다.

[그림 3] 공공공간에서의 추모
(상: 뉴저지 해변, 하: 템스강 변)[10][11]

이탈리아 북부에 있는 베르가모(BERGAMO, Italy)는 COVID-19에 의해 치명적인 타격을 입은 도시 중 하나이다. 베르가모 시장 Giorgio Gori는 희생자를 기억하고 희망과 긍정을 재발견하기 위한 '나무심기' 프로젝트를 통해 '코로나19 희생자 숲'을 재건했다. 희생자들이 작은 조개와 돌담 위에 이미지로 형상화 되듯, 살아남은 자들과 함께 하는 공원의 나무로 기억되는 공간이다 [그림 4].

[그림 4] 이탈리아, '코로나19 희생자 숲'[12]

2021년 6월 설치미술 작가인 Suzanne Brennan Firstenberg는 워싱턴 내셔널 몰(National Mall)에서 대규모 임시 추모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630,000개 이상의 작은 백기를 구매했다 [그림 5]. 이 흰색의 깃발은 질병에 항복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희생자들을 상징한다. 2주간의 전시가 끝났을 때 깃발의 수는 700,000개가 넘었다. 작가 Firstenberg는 "사람들이 기꺼이 자신의 슬픔을 공유하고 낯선 사람들의 슬픔을 존중하는 것에 감동했다. 그래서 그 깃발을 보았을 때 나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저는 인류가 승리할 것이라고 믿습니다."라고 말했다. 멀리 서 있는 전광판은 사망자 수를 알려주고 있지만, 워싱턴 몰을 가득 채운 하얀색의 깃발 하나는 한 명의 목숨이며, 기억의 매개체이다. 깃발에는 희생자를 기억하기 위한 이름과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설명하는 글귀가 남겨져 있다.

[그림 5] In America: Remember, temporary art installation in USA (2021.0922)[13]

2) 디지털 공간에서의 추모

[그림 5]에서 언급한 워싱턴 내셔널 몰 추모 프로젝트는 물리적 공공 공간(public space)에서 뿐만이 아니라 온라인 공간에서도 함께 진행됐다 (그림 6 참조). 물리적 공간은 2주 후에 철거되었지만, 웹사이트에는 여전히 모든 기록이 남아있다.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과 함께 사용자가 지도를 드래그하거나, 확대 버튼을 누르면, 깃발 한 개 한 개에 적힌 글과 사진을 확인할 수 있으며, 동시에 우측 메뉴를 통해 사망자의 이름을 선택할 수 있다.

10) COVID-19 memorial creators reflect as world nears 5M deaths. (2022.11.05.). URL: https://apnews.com/article/coronavirus-pandemic-health-arts-and-entertainment-pandemics-los-angeles-45b3f3df4efef2265dfc4b451953012a

11) A World Remembers. (2021.10.30.). URL: https://apnews.com/article/coronavirus-pandemic-five-million-dead-memorials-acd5a25aabb50f203c8ee059803a1bec

12) Bosco della Memoria. (2022.11.10.) URL: https://new.abb.com/news/detail/76861/abb-supports-the-bosco-della-memoria-in-bergamo-to-commemorate-the-victims-of-covid-19

13) A World Remembers. (2021.10.30.). URL: https://apnews.com/article/coronavirus-pandemic-five-million-dead-memorials-acd5a25aabb50f203c8ee059803a1bec

[그림 6] In America: Remember[14)]

2020년 많은 국가가 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외출 제한과 상점들의 영업을 중단하는 록다움(Lock down)을 실행했다. 이로 인해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의 장례식에도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세계 곳곳에서는 온라인 화상 프로그램을 활용한 온라인 실시간 장례식이 이루어지기도 했으며,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한 온라인 추모관(웹사이트)들이 제작되었다.

대부분의 디지털 추모공간은 물리적 공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 사망자의 한분 한분을 기억하려 애쓴다. 그들의 이름과 사망일, 그리고 살아생전 어떤 분이었는지를 입력하고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대부분 사진을 클릭하면, 텍스트 기반의 정보가 노출되는 방식이다. 반면에 'In America: Covid Lost Loved Ones'는 희생자들의 위치를 알 수 있는 지도를 통해 사망자들의 거주지까지 확인할 수 있다. [그림 7]의 좌측 이미지와 같이 이 지도는 워싱턴 내셔널 몰에 참여한 깃발들의 희생자 데이터 세트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웹사이트이다. 뉴스에 나오는 숫자에는 희생자들이 한 명의 인간으로서 드러나지 않지만, 이 웹사이트에는 사랑했던 친구와 가족의 이름과 메시지, 돌아가신 날짜의 기억을 통해 그들의 삶을 기억할 수 있다.

[그림 7] 온라인 추모관 (좌:인도[15)], 우:미국[16)])

[그림 7]의 우측, 인도의 온라인 추모관인 'National COVID Memorial' 웹사이트도 마찬가지이다. 인도는 2021년 기준 154,000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되었는데, 의료 종사자들 앞장서 사망한 사람의 사망 증명서를 올리거나 번호를 제공하면 희생자의 사진과 글을 올릴 수 있는 웹사이트를 구축하였다. Abhijit Chowdhury 박사는 "이 온라인 기념관은 가족도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한 채 화장된 사람들의 존엄성을 어느 정도 회복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기억을 되살리기 위한 곳이다"라고 말했다.

[그림 8] 애도와 기억의 장 웹사이트[17)]

국내에도 [그림 8]과 같이 '애도와 기억의 장' 웹사이트가 있다.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가 2022년 2월에 개시한 이 디지털 공간은 소중한 가족 구성원과 동료를 잃은 이들과 함께 고인에 대한 기억과 슬픔을 나누며 상실의 고통과 이유를 함께 지켜보는 시간을 위한 곳이다. 그러나 해외 웹사이트들보다 많이 알려지지 않은 상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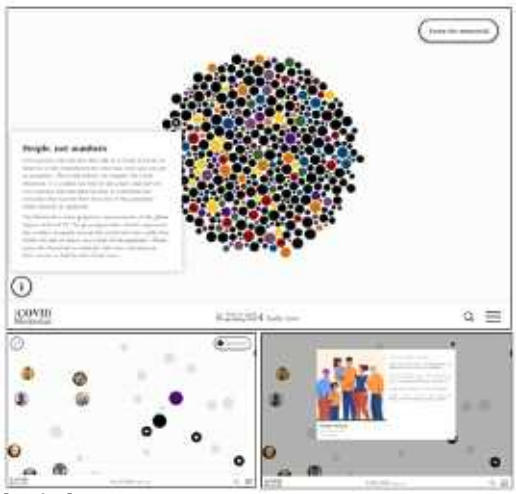
THE COVID Memorial 웹사이트는 메인 화면에서 이렇게 말한다. "People, Not Numbers" '코로나19로 인해 목숨을 잃은 사람이 누구든지 통계가 아니라, 누구였는지 기억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코로나 기념관을 만든 이유입니다. 사망한 모든 사람의 얼굴과 사연을 남길 뿐만 아니라 전염병으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목숨을 잃은 모든 사람을 추모하는 자리입니다.' 웹사이트의 메인페이지에는 이 사이트의 목적을 설명하는 정보와 코로나19가 전 세계에 미친 영향을 실시간 그래픽으로 나타낸다. 모든 데이터 세트는 매일 업데이트되며 점의 증가하는 숫자는 팬데믹의 결과로 지난 24시간 동안 사망한 전 세계 사람들의 수를 나타낸다. 다만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COVID-19의 직간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사람들의 모든 이야기가 포함될 수 있어, 공식적인 사망자 수와는 맞지 않을 수 있다. 오른쪽 위에는 'Enter the memorial'의 버튼으로 배치하여 마치 추모관 안으로 들어가는 엄숙함을 만들어낸다.[18)]

14) In America : Remember. (2022.10.12.). URL: https://www.inamericaflags.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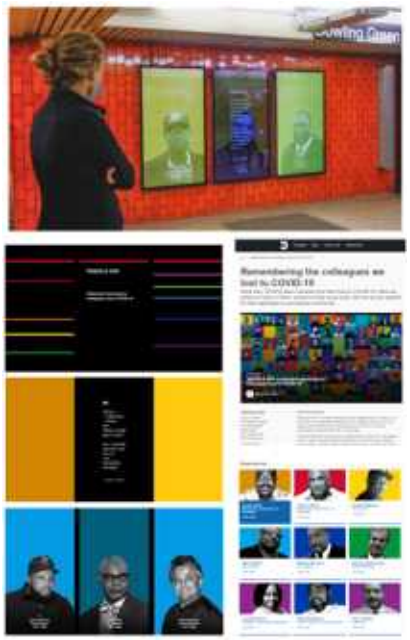
15) 인도 온라인 추모관 (2022.10.01.). URL: www.nationalcovidmemorial.in

16) In America: Covid Lost Loved Ones (2022.11.20.) https://inamericaflags.maps.arcgis.com/

17) 애도와 기억의 장 웹사이트. (2022.09.11.). URL: https://remember2022.net/



[그림 9] The Covid Memorial 'People, not numbers'19)



[그림 10] Remembering the colleagues we lost to COVID-1920)

뉴욕 시는 기존의 추모 방식을 벗어나 COVID-19 시기에도 마지막까지 대중 서비스를 제공한 운송 노동자 59명을 추모하기 위해 미디어 스크린 전시와 웹사이트를 제작했다. 지하철역에 설치된 디지털 스크린을 통해 시민들은 팬데믹 기간 동안 사망한 직원들이 누구이고, 또 그들에 관한 이야기에 자연스럽게 공유할 수 있다. 또한, 희생자들을 공공의 공간에 단순히 드러내는 것 이외의 의미 있는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 이들을 기억하기 위한 시가 제작되었고, 총 8개국 언어(벵골어, 중국어, 영어, 아이티 크리올어, 한국어, 러시아어, 스페인어)로 번역되어 노출된다. 미국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MTA) 예술 디자인 담당 이사인 산드라 블러드워스는 "다양한 색깔로 둘러싸인 흑백의 초상화는 가족과 동료들에게 알려진 독특한 개성을 엿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 추모비는 예술이 우리의 슬픔을 전달하고 동료들의 기억을 기리는 강력한 전달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라고 말했다.[21] 디지털 스크린을 활용한 이 프로젝트는 웹사이트에서도 동시에 진행됐다.

3. 추모를 위한 시각적 요소

지금까지 팬데믹으로 인한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다양한 활동을 살펴봤다. 광장이나 해변, 그리고 지하철의 공공의 공간뿐 아니라, 디지털 공간에서도 추모의 물결은 이어졌다. 공통적인 사항은 이들 모두가 '숫자'로 표기된 죽음의 수를 벗어나, 한 명의 개인을 조망하고 기억하려 애썼다는 점이다.

Luiz Morais외 3인(2022)은 인류 통계학 관점에서 데이터 저널리스트들이나 시각디자이너들이 사람을 주체로 한 데이터를 표현할 때 그래픽에 지나치게 치중하여 관객의 공감이 부족하다고 판단, 신문, 웹사이트 및 연구 논문에서 수집한 105개의 시각화 자료들을 인류 통계학적 프레임과 디자인 유형으로 나누어 분석했다. [표 1]과 같이 그들은 인간의 시각화를 크게 '무엇을 보여주느냐'와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의 두 가지로 분류했다.[22] 인류학자들은 사람에 관한 데이터 세트를 표현하는 데 있어, 개별성과 정보의 특수성, 범위, 그리고 사실성을 염두에 뒀다. 개별성이 높을수록 한 명의 개인이 한 개의 형태로 표현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18) The Covid Memorial (2022.11.14.) https://thecovid.memorial/

19) ibid.

20) Remembering the colleagues we lost to COVID-19. (2022.10.09.) https://new.mta.info/covid-memorial

21) MTA honors fallen comrades with new COVID-19 memorial (20221.2.25) https://www.brooklynpaper.com/mta-honors-fallen-comrades-with-new-covid-19-memorial/

22) 김민정, 엄기준, op.cit., 2021, pp.39-51.

정보의 특수성은 한 명의 개인을 얼마만큼 설명하느냐이다. 이는 사실성과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한 명의 개인에 대한 속성을 얼마나 많이 알려주느냐로 판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그림 11과 같이 각자의 이름을 표기하는 경우 정보의 특수성이 높다 하겠다. 또한, 모든 데이터 세트가 시각화되어 표현된 경우 범위가 높은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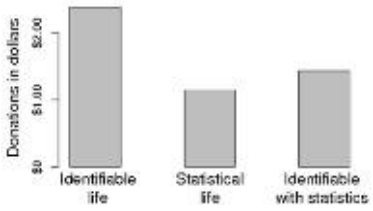
[표 1] 인간의 표현방법 분석표[23)]

유형	디자인 유형
What is Shown	개별성 (Granularity)
	정보의 특수성 (Information specificity)
	범위 (Coverage)
	사실성 (Authenticity)
How it is shown	현실성 (Realism)
	물질적 특성 (Physicality)
	상황성 (Situatedness)

[그림 11] The seven dimensions of the anthropographics design space[24)]

Luiz Morais(2022)의 연구는 공감을 강화하기 위한 한 인간의 표현방법을 연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인간의 시각화 유형과 공감 정도에 관한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하진 못했다. 정보 시각화 관점에서 보자면, 그림 11에는 몇 가지 오류가 있다. 예를 들어, 사실성 (Authenticity)의 경우 개인에 대한 부분적인 속성값 표기가 많을수록 사실성이 더 높아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학적 관점에서의 본 연구의 분석 도구는 매우 의의가 높다. 결국 '사람'을 대상으로 한 콘텐츠에서 '공감'을 높이는 방법 중 '개별화'와 '정보의 자세함(특수성)'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3-1.개별성



[그림 12] 평균 기부금, Paul Slovic(2007)

Kogut과 Ritov(2005)는 동일한 조건에서 단일 아동에게 더 많은 기부가 생기는 이유는 희생자가 유발하는 더 강한 감정에서 비롯될 가능성이 크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대해 오레곤 대학의 심리학자 Paul Slovic(2007) 역시 기아에 시달리는 어린 소녀에 대한 기부금 조성 실험을 진행한다. 실험 대상을 세 집단으로 나누어, 한쪽 집단에는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고 있는 아프리카 7세 소녀'을 얼굴을 보여줬고, 다른 집단에는 아프리카의 빈곤 상황을 나타내는 그래프를 제시, 나머지 집단은 아이의 얼굴과 함께 그래프를 보여줬다. 연구 결과, [그림 12]와 같이 아이의 얼굴을 본 집단에서의 기부금이 많았다. Paul Slovic은 이것을 '식별 가능한 희생자 효과 (identifiable victim effect)'로 칭하며 '동정심을 끌어내는 데 있어, 이미지의 사실성 여부를 떠나, 얼굴과 이름을 가진 개별 희생자의 이미지가 때론 숫자보다 강하다'고 주장했다.[25)] 동시에 그는 "우리는 하나의 이야기는 잘 이해하지만, 숫자를 이해하는 데에는 다소 불편함을 느끼며, 특히 숫자가 늘어날수록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의 정서적 연결을 잃어버린다."라고 말했다. 대량의 죽음과 학살에 반복적으로 노출된 현대인들은 무관심과 무활동의 '정서적 마비(psychic numbing)'를 경험하는 것이다.[26)]

23) Luiz Morais, Yvonne Jansen, Nazareno Andrade, Pierre Dragicevic, "Showing Data about People: A Design Space of Anthropographics", IEEE Transactions on Visualization and Computer Graphics, vol.28, 2022, pp.1661-1679, DOI Bookmark: 10.1109/TVCG.2020.3023013

24) ibid.

25) Judgment and Decision Making, Decision Research and University of Oregon, vol. 2, no. 2, April 2007, pp.79-95.

26) "If I look at the mass I will never act": Psychic numbing and genocide (2022.11.01.) https://journal.sjdm.org/7303a/jdm7303a.htm

[표 2] 뉴욕타임스 추모의 시각 언어 구성

뉴욕타임스, 'An Incalculable Loss'	
① 개별성	높음.
② 데이터의 특수성	높음. 개인별 이름, 나이, 거주지와 특징을 표기. 특히 개별 특성을 굵은체로 강조.
③ 데이터의 범위	중간.
④ 표현방법	이미지 배제, 텍스트와 조형 요소(●)로만 표기

이런 의미에서 40년 만에 처음으로 신문 전면을 코로나 희생자의 이름으로 가득 채운 뉴욕타임스 사례는 개인화와 범위, 그리고 정보의 특수성이 매우 높은 활동이다(표 2 참고). 사망자 전원을 표현하진 않았지만, 한명 한명의 이름과 나이, 거주지, 그리고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직업을 갖고 있었는지를 말해주며 정보의 특수성을 높였으며, 각각은 조형 요소 '●'로 분류되었다.

[표 3] 뉴욕타임스 추모 웹사이트의 시각 언어 구성[27]

뉴욕타임스, 'An Incalculable Loss' 웹사이트	
① 개별성	높음.
② 데이터의 특수성	높음. 사망자를 검은색으로 표현하며, 개인별 이름, 나이, 거주지와 특징 표기. 특히 개별 특성을 굵은 체로 강조.
③ 데이터의 범위	중간.
④ 표현방법	일러스트레이션(현실성:중) 실제 인간과의 관계를 상징하는 위치성도 높음.

앞서 언급한바, [표3]은 [표2]의 웹사이트 버전이다. 신문 전면에서는 아이콘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웹사이트에서는 사람을 상징하는 일러스트레이션을 활용하여 사람을 시각적으로 표현했다. 이들 중 검은색으로 표현된 아이콘은 사망자를 뜻한다. 정보의 특이성과 현실성, 그리고 개별성이 매우 높게 표현되었으며, Luiz Morais(2022)가 언급한 상황성 역시 3차원의 공간에서 있는 듯한 군집을 표현하여 상황성 역시 높다고 말할 수 있다. 인터액티브 웹사이트의 사람들은 매우 많은 데이터 수를 상징하지만, 이들을 대표하는 몇 명의 개인화된 세부 정보가 있으므로 내용에 더 집중할 수 있다.

[그림 13] NAMES Project AIDS Memorial Quilt, 1992

추모 문화를 연구해 온 예일 대학의 역사학과 조교수인 제니퍼 앨런(Jennifer Allen)은 지금까지의 추모비가 전쟁 또는 잔혹 행위에 의한 희생자들을 기리는데 초점을 맞춰 왔지만, 팬데믹으로 인한 '대량의 죽음' 역시 '우리가 잃어버린 세대'이므로 이 희생자들 역시 추모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실례로 에이즈(AIDS)로 인해 사망한 사람들을 위해 미국 전역에 펼쳐진 1992년의 'NAMES 프로젝트 에이즈 메모리얼 퀼트(NAMES Project AIDS Memorial Quilt)'를 언급했다. [그림 13]과 같이 내셔널몰에 펼쳐진 1,920장의 추모 퀼트는 105,000명 이상의 개인을 나타내며, 에이즈로 가족과 친구와 연인을 잃은 이들이 손바느질로 꾸민 높이 3피트 폭 6피트 크기의 퀼트 패널로 고인을 애도하는 방식은, 희생자에게 인격을 되돌려주고, 개인으로 기리기 위한 조용하지만 강력한 추모 행위라고 설명했다.[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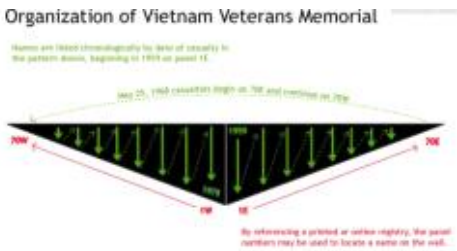
27) An Incalculable Loss' (2022.11.01.) https://www.nytimes.com/interactive/2020/05/24/

28) A World Remembers : Memorials honor

3-2. 관계성

[그림 14] Vietnam Veterans Memorial[29)]

마야린(Maya Lin)의 베트남 참전용사 기념관은 전쟁의 잔혹 행위에 의한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해 제작되었다 (그림 14 참고). 이 추모비는 반사율이 높은 검은색 화강암 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석판에는 57,939명의 전사와 실종 군인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평화로운 공원에 들어선 시민 누구나 깊게 파인 땅 아래로 걸어가다 보면 어느새 자신의 키보다 훌쩍 높은 검은색 벽 앞에 다다른다. 화강암 석조물에 새겨진 희생자들의 이름 위로 자신의 반사된 모습을 보며 누구나 삶과 죽음을 생각하게 된다.



[그림 15] Organization of Vietnam Veterans Memorial[30)]

마야린의 베트남 참전용사 기념관이 더욱 뜻깊은 이유는 희생자들의 관계와 개별성을 재조망했기 때문이다. [그림15]와 같이 희생자의 이름은 지역별이나 알파벳순이 아닌, 함께 순직한 연대순으로 정렬되어 있으며, 군인의 계급, 인종, 종교 또는 서비스 분야에 대한 언급은 없다. 대신 전사한 군인의 이름에는 다이아몬드(◆) 기호가 있고 실종된 군인의 이름에는 더하기 기호(+)가 있다. 또한, 가장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전쟁의 시작해 인 1959년과 전쟁이 끝난 1975년을 중앙에 함께 배치함으로써 삶과 죽음, 시작과 끝, 그리고 미국 역사상 가장 긴 전쟁의 희생자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그림 16] WTC Names Arrangement Tool[31)]

대량의 죽음을 추모하기 위해서는 개별성을 유지하며 인격적 주체를 기억하기 위함도 중요하지만, 이들의 관계를 고려하여 시각화하는 것 역시 깊게 따져봐야 할 부분이다. 베트남 참전용사 기념관과 마찬가지로 마이클 아라드(Michael Arad)와 피터 워커(Peter Walker)에 의해 설계된 그라운드 제로의 9.11 메모리얼 박물관과 추모비에는 9.11 테러의 희생자들 약 3000여 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건축가 아라드는 거대한 인공폭포의 난간에 새겨질 희생자들의 이름이 알파벳순이나 임의의 이름으로 배열되지 않길 원했다. 희생자들의 이름을 '의미 있는 이웃들'의 콘셉트로 정리하기 위해 몇 년에 걸쳐 희생자의 가족과 지인들로부터 약 1,200여 개의 요청을 수집한다. 그리고 프로그래머이자 디지털 예술가인 Jer Thorp는 9.11 희생자들의 이름과 사망할 때 함께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의미 있는 관계들을 연결한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으며, 실제 건축에 적용하기 위해 알고리즘과 도구를 사용하여 필터링이 가능한 사이트를 구축했다. [그림 16 참고]

COVID-19's 5 million dead (2022.11.20.) URL: https://apnews.com/article/coronavirus-pandemic-five-million-dead-memorials-acd5a25aabb50f203c8ee059803a1bec

29) The "Black Gash of Shame" (2022.11.13.) http://magazine.art21.org/2017/03/15/the-black-gash-of-shame-revisiting-the-vietnam-veterans-memorial-controversy/#.Y4NPK3ZByHs

30) Vietnam Veterans Memorial, Washington D.C, US by Maya Lin (2022.11.01.) https://www.re-thinkingthefuture.com/case-studies/a2263-vietnam-veterans-memorial-washington-d-c-us-by-maya-lin-the-black-granite-walls/

31) WTC Names Arrangement Tool (2022.11.25.) https://flowingdata.com/2011/06/15/computer-assisted-design-and-the-911-memorial/

4. 결론

인류에게 탄생과 죽음은 끝없는 탐구 대상이지만, 죽음을 대하는 것은 여전히 능숙하지 않다. 행복하고 기쁜 과거를 회상하는데 주저함이 없지만, 힘든 과거를 기억하는 것은 편치만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아있는 자들은 함께 하는 협력적 애도와 추모의 행위를 통해 문화적, 심리적 치유를 경험하게 된다. 본 연구는 코로나19로 인한 희생자들의 추모 활동의 시각적 언어를 살펴보고 죽음을 데이터 세트라고 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시각화해 나가야 하는지를 고찰한다. 본 연구는 인간을 중심으로 한 데이터시각화에서의 휴머니즘적 공감을 강화할 방안에 관한 첫 연구이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동서양 추모의 문화 및 행태에는 차이가 있지만, 추모는 '과거의 인상이나 경험을 현재의 의식에 불러내는 기억의 매개'라 할 수 있다. 추모비는 기념비나 기념관 등으로 건립되었으나, 최근에는 공공의 공간인 공원이나 광장 등, 그 범위가 매우 광범위해졌다.

둘째, COVID-19로 인한 대량의 죽음이 숫자와 그래프로 대체되어 가는 행태에 반하는 추모의 물결이 2021년 말부터 시작되었으며, 한 명의 개인뿐 아니라 단체들이 자발적으로 추모의 행위를 이어나갔다. 주변의 사물을 이용하거나, 공공의 광장에 희생자들의 죽음을 함께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있으며, 나아가 디지털 공간에서도 온라인 추모가 이루어졌다. 이는 같은 슬픔을 함께 나누는 기본적인 공유의 장(場)을 상징한다.

셋째, 희생자들의 추모 시각화는 대부분 '개인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다수의 군중에 묻힌 대상이 아니라, 한 명의 인격적 주체로써 이름과 나이, 그리고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설명하는 텍스트는 추모를 위해 반드시 드러나는 시각적 언어이다. 또한, 사람을 상징하는 아이콘 또는 삽화에서부터 매우 구체적인 사진 이미지 역시 대상의 특수성, 개별성을 강조할 수 있는 시각적 변수(visual variables)로 활용되었다.

넷째, 추모라는 것은 결국 '애도와 기억'의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다. 따라서 과거에는 전사자와 대량학살의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것만 고려해 왔다면, 이제는 사회적 공동체로써 상실된 죽음을 함께 추모할 수 있는 건강한 공간과 시각적 표현을 통한 사회적 성숙이 필요하다. 이때 희생자들의 '개인화'를 강조하는 것 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성'을 고려한 시각화도 고민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추모를 위한 시각화 전략으로서 '개별성'과 '관계성'을 제안한다. '추모'를 위한 대상이 많아질수록, 다시 말해 수치가 높아질수록 '정서적 마비'가 발생함으로, 추모 대상은 식별할 수 있도록, 타인과 구분될 수 있는 정체성 요소를 활용하여 시각화되어야 한다. 물론 본 연구에서는 개별화를 위한 이미지 유형(아이콘, 삽화, 사진)을 구별하여 분석하진 않았지만, 대상의 이름과 나이, 살던 곳, 그리고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특징짓는 개별화와 정보의 특수성이 표현되어야 한다. 또한, 사망자의 숫자가 많아질수록 데이터 세트를 알파벳 또는 시간순과 같은 임의의 나열이 아니라 삶을 영위했던 인격체로서의 관계성을 표현할 수 있는 시각적 조직화 등의 의미 있는 배열의 가미될 경우, 더욱 깊은 공감과 의미 맺기가 가능하다.

많은 사람이 베트남 참전용사 기념관 벽에 새겨진 이름을 물리적으로 만질 때, 형언할 수 없는 깊은 울림과 반성을 느꼈다고 전한다. 마찬가지로 911 테러 박물관의 인터액티브 추모 스크린 역시 우리의 참여와 추모를 강제하지 않는다. 오히려 협력적인 애도와 추모의 행위를 통해 서로 함께 슬퍼함으로써 유대관계는 더 강건해지고, 그리하여 사회는 더 건강해지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추모의 시각화는 소통을 위한 중요한 매개체이자 그 시작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추모의 시각화를 위한 첫 방안을 제시하였다. 실증적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데 연구의 한계가 있지만, 본 연구가 휴머니즘 바탕의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데이터시각화에 대한 기초 연구로써 활용되길 기대한다.

참고문헌

1. 김민정, 엄기준, 공감을 이끌어 내는 데이터 시각화 전략 연구-인간의 죽음을 표현한 데이터시각화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27권 4호, 2021.
2. 김혜은 외 1인, 현상학적 지각을 통한 메모리얼공간에 관한 연구: 메를로 퐁티의 이론을 중심으로, 조형미술논문집 14.1, 2014.
3. 문은미, 현대 매모리얼의 개념 표현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기초조형학회 vol.9 no.6, 2008.
4. 조영규, 일상과 추모의 복합성에 대한 건축 패러다임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1.

5. Luiz Morais, Yvonne Jansen, Nazareno Andrade, Pierre Dragicevic, “Showing Data about People: A Design Space of Anthropographics“, IEEE Transactions on Visualization and Computer Graphics, vol.28, 2022.
6. Judgment and Decision Making, Decision Research and University of Oregon, vol.2, no.2, 2007.
7. journal.sjdm.org
8. stdict.korean.go.kr
9. www.nytimes.com
10. apnews.com
11. new.abb.com
12 remember2022.net
13. thecovid.memorial
14. www.brooklynpaper.com
15. www.re-thinkingthefuture.com
16. flowingdata.com